침묵 깬 유승민 "굿 한 적 없습니다"

김건희 통화 녹취 보도 반박

"고발 사주 공작도 허위 날조" 홍준표 "자연스럽게 거짓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와 관련, 당내 경선 이후 침묵을 이어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입을 열었다.

유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저에 대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 날조임을 분명히 밝힙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굿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발 사주를 공작한 적이 없습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사실 관계를 분명히 알립니다"고 썼다. 이는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 중 자신을 둘러싼 무속 굿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굿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MBC를 통해 전날 보도된 이후 보인 반응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이 바닥에선 누구 굿하고(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 들어와. 누가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나는)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나는 다 설(說)이지. 증거 가져오라고 해. 난 없어, 실제로"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기자가 "홍준표도 굿했어요? 그러면?"이라고 묻자 "그럼"이라고 답했다. 이 기자가 추가로 "유승민도?"라고 묻자 "그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녹취록에서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그니까 우리 남편이 한 적 없는데 정치공작하는 것"이라며 "유승민하고 홍준표 쪽하고 공작을 하는 거지 뭐. 유승민하고 홍준표 쪽에서 우리 남편을 떨어뜨려야 자기네가 나오니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보도에 대해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무섭네요. 내 평생 굿한 적 없고 나는 무속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께서 거짓말을 할 리는 전혀 없을 거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코바나컨텐츠) 대표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말)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프로필 사진 찍는 김건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는 현장이 공개됐다. 김씨 팬클럽인 '건희 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대표님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장소는 스튜디오입니다"라며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정장 차림인 김씨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연합뉴스

與도 野도 서울 종로 선거 어쩌나

민주, 이낙연 사퇴한 곳 역풍 우려
박영선·추미애·임종석 후보 거론

전략공천으로 당내 합의한 국힘
경선 주자냐 새 인물이냐 의견차

여야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천 갈등'이 기폭제가 돼 공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일단 당내에선 종로구는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경선주자 영입론과 새 인물 투입론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 경선주자들을 공천하면 '화합'을 강조할 수 있어 범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중량급 인사가 들어설 경우 정권교체 이후 윤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재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경선주자 영입론에 대한 비토가 거세다는 얘기가 있다.

윤 후보와 홍 의원의 공천 갈등 이후 새 인물 투입론도 대두되고 있다. 기성정치와 거리가 먼 윤 후보의 참신성을 부각하려면 오히려 정치권 밖 새로운 인물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종로구에 공천을 할지 말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이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주변 만류에도 사퇴한 곳에 재차 공천하는 것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탓이다. 아울러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 모멘텀 전환을 위해 과감히 무(無)공천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공천할 경우엔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3·9 재보궐선거 공천 시동

여야 공관위원장 내부 인사 유력

국민의힘, 이번주 중 선임 계획
영남권 중진 의원 발탁 가능성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 5개 선거구(대구 중구남구, 서울 종로구·서초구갑,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공당에 대한 국민 평가가 이뤄지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내부 인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중진 의원이 낙점받을 경우 영남권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에선 대선 주자에 당 대표까지, 공천 과정에 이런저런 훈수를 쏟아낼 '시어머니'가 많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의 피로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재·보선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내부 인사가 공천 심사과정을 관장할 것"이라며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만큼 노련함, 중립성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 의원은 홍준표(대구 수성구을)·주호영(대구 수성구갑)·서병수(부산)·조경태(부산)·정진석(충남)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영남 출신이다.

권영세 사무총장을 비롯한 4선 의원도 7명 있지만 당내에선 대선 후보와 당 대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면 최다선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중진 의원들에게 이번 공천관리위원장은 먹고 싶은 떡이 아니다. 공천권 행사를 두고 당의 실력자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데다가 자칫 내부 이견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대구 중남구 설 지나야 윤곽

후보 난립 검증시간 길어질 듯
野 공관위, 컷오프 후 경선 가닥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보궐선거 공천 프로세스 윤곽이 설 연휴 이후에나 드러날 전망이다. 후보 난립으로 인한 검증시간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여론 등 검토해야 할 사안도 많아져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후 곧바로 속도전 돌입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르면 24일 위원장을 내정하고 본격적인 공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구남구엔 이미 9명의 예비후보가 몰려 있는데다 유영하 변호사 등 추가 출마 예상자들이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특히 당 대표 측근, 지난 총선 출마자, 전직 기초단체장까지 가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후보군은 20명대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관위가 예비후보자 모두를 직접 검증하기는 불가능해 컷오프 이후 경선을 치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준석 대표도 최근 "컷오프 후 여론조사 경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천 과정에 대한 원칙은 세워졌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우선 공관위원들 임의대로 곧바로 컷오프를 진행할지, 서류심사 또는 면접을 통한 컷오프작업을 진행할지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

컷오프를 거치더라도 최종 후보를 상대로 경선 전 따로 면접시간을 둘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본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일반인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지와 질문의 세부 사안 결정까지 공관위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23일 "공관위가 꾸려지더라도 당장 공천 실무작업에 돌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시당에 내려온 지침도 전무한 상태"라며 "설 연휴 이후에나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근우 기자 gnu@imaeil.com

부동산

아파트

전세

수성1가 신세계43(142㎡)10층 배관까지 올리모델링 전세 4억5천 766)6333
No. 가-16-4607 수성구 왕건부동산 노미영

주택

매매

싼주택 (공단역) 대224㎡ 건 2층 양옥 1층주인살고月80만 매3억5500 대출알선 010)3528)3307
No. 가-17-261 달서구 동아부동산 정동섭

매매기타

청도 운문 화랑풍류단지내 큰강옆 펜션(수영可)186(615㎡) 1층 방4,2층 큰방1 매3억5천010)8383)3029

골프장 매매 보증금5천月330(1억 5천인수 대출有) /커피숍 임대 보증금5천 월세無 010)9294)9006

모텔/목욕탕

무인모텔 인수가5억 대1,650㎡(500) 건강상 급매 매출확실 010)3536)4916
No. 27170-2020-00012 서구 온누리부동산 양현석

특급호텔3천 인수 대구 최요지 주인직.선착순.급이민 010)3098)7995

대지/임야/공장

군위 소보면 땅 (당 3만원) 신공항 인근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200㎡(62,200) 010)8579)1801

고령 토목 공사된 땅 102,182㎡(30,910) 매매27억 개발용부지 010)3225)1189
No. 27170-2018-00043 서구 뉴삼강부동산 김정현

운문 댐 상류 전원주택, 정남향 황토 방,정자,텃밭,저온창고완비 대 264㎡답1078㎡ 총3억5천010)3546)7261

공장 이현동 대1269㎡건860㎡당650/ 중리동 대1150㎡ 건1층774㎡·2층 747㎡(층8M·4M)당750 010)3506)6105
No. 27170-2021-00032 서구 비전공인 신윤겸

왜관 매원리 2334㎡ 주말농장,전원 주택지 매5억2천/수륜면 백운리 식당 대370 건60 매6억 010)7373)9939
No. 27290-2020-00067 달서구 광명부동산 최용석

상가부지 준주거, 아파트정문 앞 4차선접 대178 당1200만 허가필 010)4538)4590

하양 청천리 555번지外 6필지, 1종일반 2112㎡(639)당240만 대구인접 주택有(개인) 010)6525)2597

영천시 땅 94,700㎡(28,700)

영천IC 10분 임야·전

북안IC 5분 계획관리지역 010)8579)1801

상가

오피스텔

남구미IC 근 주거형 오피스텔 면적73㎡ 풀옵션 정 남향 전망최상 매8700만 054)956)9080

일반상가

우사·돈사·계사 매매 전문 전국 물건 다량 보유 010)8242)4406

병원임대 1층 305㎡서부정류장·관문시장 최요지 보1억5천 月546(관포) 010)3530)0203
No. 가-17-3306 달서구 대아공인중개사 백윤규

통상가 교회·회사사옥 최적지 대198 건302 북구 연경동 매37억 주인직접 010)6727)3330

다용도 달구벌대로 네거리코너 멋진 6층빌딩 대지202 건물762 급매62억 010)3501)1477

큰(땅·건물) 대600 건4500 대로코너 보26억 月1억2천出 매275억 010)3501)1477

초급매 분양525 전용336 대형마트 성업중 10억인수 月1800(융하) 수익률:공제후9.6% 010)6624)4580

식품/수퍼

마트매매 구미 4천세대 APT 독점 주차장,비품 포함 인수44억 010)3508)8001
No. 가-16-4827 수성구 맥부동산 박영철

사무실

개업(소속)공인 중개사 수입 보장 200/22 (모두 포함) 010)3200)3069
No. 27-2014-00079 달서구 본동 개업공인중개사공동사무소

상가주택

수성구 2층 상가주택 대237㎡ 30m코너접 요지 月200 인수3억 571)0403
No. 27170-2020-00012 서구 온누리부동산 양현석

매일안내 광고문의
053)251-1234
080-711-2001
每日新聞

청도군
청도 금복공인중개사무소
제47820-2020-000009호
[청도 풍각면 봉기로 149]
054)371-3388 / 010-4946-8884

연20%풀빌라펜션 연매출3~4억 성업중(장부공개), 호숫가 고급 풀빌라 펜션, 매18억(융7억포함)

임야 주말쉼터 임야 3,883㎡ 소나무 숲과 탁 트인 경치 좋은 땅, 전기,수도, 도로, 농막 있음. 건축허가 有. 매8천5백(당6만)

촌마을 주변 집지을 땅 수성구45분, 현풍20분거리, 조용한 마을 주변 대지 462㎡(140p), 남향, 전기·수도, 6m도접. 매8천5백(당60만)

월세320만 알짜 원룸 구미 먹자골목안 삼거리 각지, 대지 218㎡(66p), 4층 건물400㎡(120p), 투룸3, 원룸9, 올리모델링. 매매3억2천(보5천별도)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110호

분묘개장공고(2차)

우리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정비공사】에 편입된 분묘를 개장하기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하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시가 다음과 같이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개장사유 :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정비공사」에 편입
2. 공고기간 : 2021.12.16. ~ 2022.03.16.(3개월)
3. 개장방법 : 연고자가 확인될 경우는 협의 후 개장,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개장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개장
4.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내 또는 인근 소재 봉안시설
   나.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신 고 처 :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보상과 (☎053-803-8033)
6.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묘적부, 제적등본, 족보, 가첩, 이·통장 사실확인서 등)
7. 기타사항 : 다음 분묘 외에 동일지번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개장분묘 대상

순번	소재지			지목	분묘기수 합계	분묘번호
	구	동	지번			
1	달서구	장동	산28	임야	18	묘번 마168~177, 180, 182, 183, 185, 202, 207~209

2022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장

회사분할합병(전문소방시설공사업)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대구방재설비 (이하 갑)과 주식회사 세한 (이하 을)은 각각 양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번호 : 제16호)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 9에 의해 출자재산(승계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고, 주주는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합병(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등록번호 제16호
2. 분할합병(양도, 양수)예정일 : 2022년 2월 25일
3. 의견제출기한 : 2022년 1월 25일 ~ 2022년 2월 24일
4. 의견제출장소 : (갑)과 (을)의 본점소재지

2022년 1월 24일

"(갑)" 주식회사 대구방재설비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7길 21(삼덕동)
사내이사 김 태 홍

"(을)" 주식회사 세한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당골길 87
대표이사 노 옥 례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 251-1234

한국결혼정보원
국제·국내, 초혼, 재혼
국제6가 대구중구 2018-0001 국내,6 대구중구 2018-0002
010-3810-3003 ★독립 메니저 초장★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273) 동인3가 271-128
TEL 053-424-5500 FAX 053-423-6003

국내 전문 수림결혼정보 초혼 재혼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보증보험 국가등록 대구2008-3호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01호)